

새만금간척박물관 존립 법적 근거 법률안 신설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건축 과정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아파트 매수자 권리구제 확보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간척박물관 존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간척박물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자의 권리 확보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 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및 기부금 등 운영 재원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박물관 개관을 위한 건축 공사 등 시에 개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이날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다주택자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지만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매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법적 존립 근거가 명확치 않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개관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새만금 발전을 위한 박물관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뒤 조정구역지정으로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돼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11일 신임 최준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공장의 빠른 정상화 및 지역경제외의 상생에 당부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빠른 정상화 · 지역경제 상생

송지용 의장, 최준혁 신임 공장장과 면담... 최 공장장 "스타리아 생산 차질없도록 준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11일 신임 최준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공장의 빠른 정상화 및 지역경제외의 상생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이날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올해 초 투입한 최 공장장을 만났다.

최준혁 공장장은 지난해 10월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일부를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노사합의 당시 울산공장 생산담당 부사장이었다.

송 의장은 "스타리아 물량배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전주공장은 최근 7~8년간 가동률이 50%미만에 그치면서 고용불안을 겪어왔는데, 스타리아 생산이 이뤄지면 고용과 부품·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살피 보장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대차가 수소모빌리티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가 갖춰진 전주공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서도 현대차와 전북의 공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공장장은 "전주공장에서 스타리아 생산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신영대 의원,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정원)에 따르면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소위 '작봉'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유통 현장을 조사·지적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학



생출원 권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현장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신 의원은 현행 서면심리로 이뤄지고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심리 과정에서 구술심리를 활성화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심리 개선 3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도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벤처·스타트업 등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청,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최우수'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3개 분야 13개 지표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민원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매우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호상 기자

음주운전 사고시 초범·재범 사이 시차 고려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운전과 현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과거 음

주운전과 현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헌재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윤창호법'의 사회적 가치 또한 여전하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했다. 그리고 음주운전사고로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합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리를 보완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인사고발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해 국가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이재명 당선, 전북발전의 초석 될 것"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후보 직속 자치분권위 특보단 부단장 임명돼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자치분권 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의원) 총괄특보단 특보, 자치분권특보단 부단장으로 임명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우 전 부지사는 지난해 전북도당 강령특별위원회장으로 임명받았고, 지

난 1월4일 균형발전 위원회(후보직속) 산하 공동선대 위원장과 전북총괄본부장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우 전 부지사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핵심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전주시가 경제에 뒤쳐진 낙후도시라는 오명을 벗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전 주와 전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달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자치분권 위원회 총괄특보단 특보, 자치분권특보단 부단장으로 임명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원주군수에 출마하는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다.

유희태 민주 정책위의장, 교육격차해소 공동위원장 임명

원주군수에 출마하는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교육격차해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유 부의장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로부터 공동위원장 위촉장을 수여 받

았다.

유 부의장은 지역 및 개인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통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정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공약 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순환경제 녹색도시 원예작물 전량 수매 미륵사지 완전 복원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 3대 정책개발 방향 제시

강팔문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 익산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개발 방향에 대한 구상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은 2000년 역사고도의 문화 자원과 전례의 농생명 먹거리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사회적 자본화해 미래 익산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 정책을 탈피해 익산의 자산인 2000년 고도 역사 문화 녹색도시 구축, 농생명산업을 경제활성화로 승화시켜 100년 이상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익 경제의 판과 틀의 전환에 과감한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는 숲의 거리 조성과 연간 2조원대 이상의 순환경 관광 수익으로 신바람 나는 경제 활성화 원예작물을 전량 수매해 농민의 소득이 보강될 수 있는 물류유통 시스템 개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완전 복원을 통해 시키겠다"고 밝혔다.

강팔문 예비후보는 "익산시민의 자력을 보여줄 때이다"며 "익산이 경쟁력 있고 특색있는 자립 도시로 거듭나 익산의 젊은이들이 익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이 모이는 멋진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